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평신교교회 담임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목사님 중의 한 분은 영국 복음주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1913.3.18.2세에 사망)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가까워 오자 의사는 가족들에게 약의 투여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님 뵈옵는 날이 가까이 왔는데 왜 이 죽음의 영광을 내게서 빼앗으려 합니까?”라고 힘껏 말했다고 한다. 자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 목사님의 확신은 병상에서 순간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닐 것이다. 일평생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영원에 속한 것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다. 그분에게 죽음은 사랑하지 않던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그토록 사랑하고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분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영광의 기회라고 말한 것이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만나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위협이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날”이 있다. “저 합작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 가졌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완치 판정 받았습니 다. 집을 사서 이사 갑니다.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저 내일 전역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의 일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감격의 그 날의 소리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전도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상숭배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과 드디어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 날의 그 소리’가 아닐까.

오래 전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 중에 선지자 안나가 있었다.(눅2장) 오늘 우리도 안나 같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눅2:37)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오고 싶은 날도 있지만 오기 싫은 날도 적잖게 많다. 즉 예수를 만나 보면 성전을 떠나고 싶은 유혹과 상황이 몰릴듯이

밀려온다는 것이다.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성전에서 쫓아내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한다. 안나의 인생을 보면 얼마든지 성전을 떠날 수 있는 유혹과 환경이 많았다. 안나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 당시 여자들이 약 14세 정도에 결혼을 했으니 안나가 14세에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결혼 후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어 21세에 청상과부가 되어 과부로 84년을 살았다.

예수님 당시 고아와 과부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안나는 21세에 남편을 보내고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야 하는 그 집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안나가 그 상황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긴 비결은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했다. 그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었다. 삶이 힘들고, 눈물 나고, 내가 진 집이 너무 무거워 해석되지 않을 때 성전에서 울고 불며 금식하며 견뎌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의 행동을 보자.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눅2:38)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온 마침 그 때에 100살이 넘는 안나 할머니 선지자가 나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한 일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즉 나이가 백 살이 넘는 할머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아~~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바로 그 날’의 주인공인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백 살이 넘어서도 복음을 전한 그 여인처럼 말이다.

이미 고인(故人)이 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이다. 경기도 어느 요양원에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요양원에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면 “내가 저 목사님 전도했어. 내가 저 목사님 전도했어” 그런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치매도 있고 해서 통 말을 수가 없는데 날마다 그러니까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 할머니 이름이 뭐냐고 묻자 김영순할머니라고. 그러자 맞습니다. 내가 폐에 구멍이 뚫려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을 때 김영순 집사님이 “종각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 받고 살 소망이 생겨”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조용기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서 그 요양원은 아주 잘 먹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이지만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전도한 영순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순이가 있었다.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청 장년부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영순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영순이처럼 아들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증거일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지금, 한국 사회는 깊은 갈등의 심연 속에 놓여 있다. 전 정부의 계엄 시도와 그 후유증이 남긴 사회적 상처는 국민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고, 마치 핵 추출과 소수 분할처럼 국민을 배제한 채 진영 간의 불신과 반목을 더욱 고착화하였다. 이러한 침체한 갈등 구도 속에는 놀랍게도 서로를 대립하는 진영에 속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념적 진영을 초월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상대 진영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로를 향해 정죄의 칼

못하고 배척하는 현실이다. 자기 신앙의 잣대로 다른 기독교 진영을 재단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휘두르며, 자신의 정치적 또는 이념적 결말이나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화 한다. 이는 이미 복음의 중심에서 이탈하여 세속적인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국민들은 물론 기독교인들조차도 명분 없는 계엄 같은 정치 행위나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비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앞세워 ‘하나님의 섭리’ 운운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세속적인 권력이나 특정 국가의 국무성, 혹은 국가 정당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데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

서로에게 비난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성탄은 다시금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 질문은 우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 사랑과 용서를 삶 속에서 실천을 묻는 준엄한 물음이다.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십자가만 앞세운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2025년의 성탄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진영의 장벽을 허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이 돌아가 화해를 이루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의 충돌과 분열 속에서 다시 평화와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자(Peacemaker)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여야 한다. 휘황한 성탄 트리의 불빛보다 거룩한 행실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반사체로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죄가 넘실대는 세상에 오신 성탄의 뜻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우실 자리없이 메시아를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또 자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한규 목사
들꽃사랑교회 담임
시인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_ 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광야에서 힘을 얻기 위하여!

인생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 아침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떠나야 했다. 얼마나 간단한 인생의 법칙인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겠는지 생각해볼라. 일주일은 고사하고 하루 앞을 계획할 수 없는 ‘하루살이’의 삶이었다.

이런 ‘답답한’ 광야생활을 감당할 원동력이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다. 모세는 아침에 성막 안에 있던 법계가 떠날 때에는 기도를 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

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과 싸워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이다. 모세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대적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해가 저서 법계가 성막 안에 머물 때에도 모세는 기도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아침과 저녁의 기도내용을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주소서”였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필요하다. 험한 세상에서 내가 홀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간의 친밀함이 느껴진다. 아침에 문안인사를 여쭙고 저녁에 주무실 자리를 밝드리며 인사하는 친숙한 사이이다. 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가?

>>> 일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저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친밀함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필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노불요양병원

밝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 339-9905. FAX 061) 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 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 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